

사랑의열매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ISSUE **156** 
2020 APRIL



나눔 이슈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무료 마스크 나눔 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배우 김보성

내 인생의 한마디
꼬막비빔밥 최초 개발한
'엄지네포장마차'
김미자·최근영 대표

모두의 나눔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기술을 전합니다

착한기업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를,
한국서부발전(주)

CONTENTS



사랑의열매

vol. 156 2020. 04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20년 4월 / 통권 156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기획

모두의 나눔 _ C-SDGs 연계 배분 사업
⑨ 적정기술과 정보기술 격차 해소 지원

12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기술을 전합니다

9 적정기술과 정보기술
격차 해소 지원



04 나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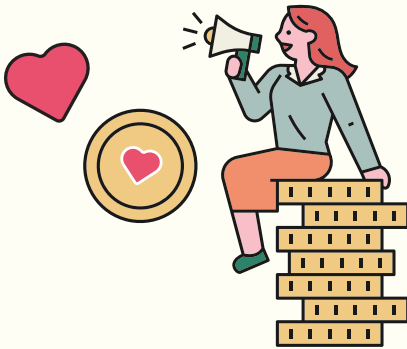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의열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08 커버스토리

대구에서 무료 마스크 나눔 하고 돌아온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아너 소사이어티,
배우 김보성

18 내인생의 한마디

꼬막비빔밥 최초 개발한
'엄지네포장마차' 김미자·최근영 대표



22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사회적협동조합 '나무와열매'

32 누구나 나눔
사랑의열매 클라우드 펀딩

40 문화로 보는 나눔
예술로 만나는 이웃 이야기

26 착한기업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34 동네방네 2
강원 사랑의열매_ 강원119행복기금

42 나눔 현장
정태희 대전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강기철 경남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30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20여 년간 공임비 전액 기부해온
원일대장간 이승태 대표

36 나눔 트렌드
선한 영향력 & 참여형 기부

44 전국 지회 뉴스

38 새로 쓰는 나눔말 사전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

55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이민호



전인화, 유동근 부부



정해인



강사 이선재



레드벨벳 아이린



남주혁



손나은



김영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이자 희망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새 두 달이 넘어 이제는 전 세계를 감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나눔의 힘은 더욱 빛나는 법이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각 소속사 및 사랑의열매

코로나19 기부 행렬에 동참한 스타

3월에도 사랑의열매 코로나19 특별 모금에 동참한 유명인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레드벨벳 리더 아이린과 웬디가 각각 1억 원, 슬기·조이·예리가 함께 3,000만 원을 전달하며 멤버 전원 이 기부에 동참했다. 소녀시대 윤아 1억 원, 트와이스 썬우·다현·나연이 각각 5,000만 원을, 트로트 가수 송가인 3,244만 원, 홍자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엑소 수호 5,000만 원, 지코와 유노윤호는 각각 3,000만 원, 가수 김범수와 박효신이 각각 1억 원씩, 보컬 그룹 노을의 멤버들이 1,000만 원을 전하며 가요계 선후배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배우 현빈 2억 원, 이서진·김수현·정해인·이정재·김영철·이민호·마동석이 각각 1억 원, 손나은과 남주혁은 각각 5,000만 원을 기부했다. 방송인 전현무 1억 원, 박나래와 김구라가 각각 5,0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배우 김사랑은 1억 원 상당의 손 소독제 2만 개를, 방송인 김성주 5,000만 원 상당 의료용품을 기부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탰다. 차인표·신애라 부부가 1억 원을, 유동근·전인화 부부 1억 원, 이상우·김소연 부부 5,000만 원을 기부하며 선행 부부다운 면모를 보였다. 스포츠계에서도 힘을 보탰다. 야구에서는 영원한 국민 타자인 이승엽 이승엽야구장학재단이사장, 삼성 유규민 선수

가 각각 5,000만 원을, KT 황재균 선수와 양준혁 전 야구 선수가 각각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골프에서는 배상문 선수가 3,500만 원, 박성현 선수가 3,600만 원을, e-sport에선 e스포츠팀 T1 소속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3,000만 원, 젠지e스포츠 소속 '롤러' 박재혁 선수가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용신 성우가 5,000만 원, 이연복 셰프가 2,000만 원, 스타 강사 설민석과 이선재가 각각 1억 원씩 기부하는 등 각계각층의 응원이 모이고 있다.

기업과 기관에서도 성금 전달

기업들도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다. SK그룹과 LG그룹 각각 50억 원, 네이버 20억 원, GS·KCC·신한금융그룹이 각각 10억 원, 롯데그룹 5억 5,000만 원, 삼성생명과 JYP엔터테인먼트에서 각각 5억 원, LS그룹·아모레퍼시픽·두산그룹이 각각 3억 원, 신전떡볶이 2억 원을 기부했다. 현대해상, 경동제약, SK이노베이션, 동아일렉콤, 조선일보, (주)정성물류티, (주)세종, 부방테크로그룹 등이 각각 1억 원을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및 자회사 등이 뜻 모아 22억 원을 기부했으며, 새문안교회·소망교회·온누리교회·잠실교회·주안장로교회 등 종교 단체에서 5억 5,0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전 국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모금에 참여

사랑의열매 코로나19 특별 모금이 연예인과 기업을 넘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국민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주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화제를 모았다. 화재 피해 복구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국민 온정에 보답하기 위해 십시일반 '보은의 성금'을 모은 것. 숙명여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온라인상에서 일주일간 모금 활동을 진행해 모은 기부액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했다. 개개인이 저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 나눔을 실천한 경우도 많다. 아너소사이터티 회원이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권오록 전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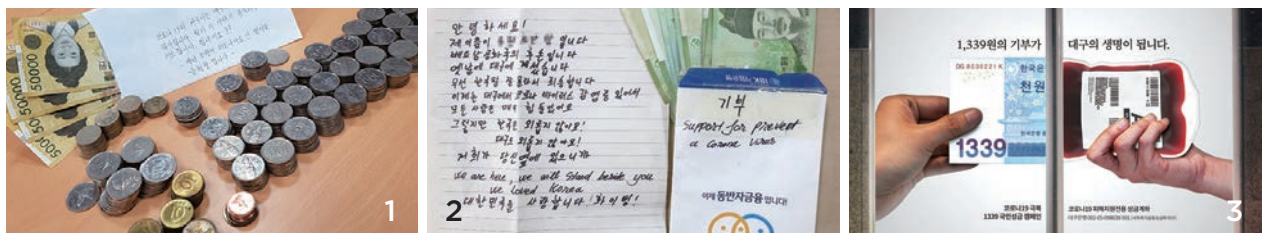
은평구청장은 개인 최고액인 5억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걸 보고 고향에서 전염병이 돌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 기탁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한 베트남인은 직접 작성한 손 편지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금 10만 원을 전달했고, 세상을 떠난 반려견이 생각날 때마다 저금한 저금통을 기부한 자, 손 편지와 함께 현금 600만 원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자 등 사연은 달라도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이겨내고자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

#1339 국민 성금 캠페인 #힘내라 대구

대구 청년 단체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청년희망공동체대구' 소속 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고자 '1339 국민 성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의 참여 방법은 대구 사랑의열매 기부 계좌로 송금 후 SNS에 캠페인을 자유롭게 홍보하고, 지인 3명에게 캠페인을 추천한다. 한 사람의 참여로 3일간 9명이 기부 참여하는 방식이며, 기부금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 번호인 1339에서 착안해 1,339원 또는 1만 3,390원, 13만 3,900원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달하면 된다.

코로나19 특별 모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	926101-01-000665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	100-013-921256	
농협	085-01-107391	



1 반려견이 생각날 때마다 저금한 저금통을 기부 2 베트남인이 전달한 손편지와 기부금 3 1339 국민성금캠페인 포스터



1 서울,경기지역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코로나19 구호·예방 물품 전달 2 대구,경북지역 장애인 가정 소독을 위해 지원되는 전해주기
3 인천 지역사회복지관 이용자에게 전달할 코로나19 예방 꾸러미 제작 현장 4 대구·경북지역 의료진과 아이들을 위한 생필품·위생용품 지원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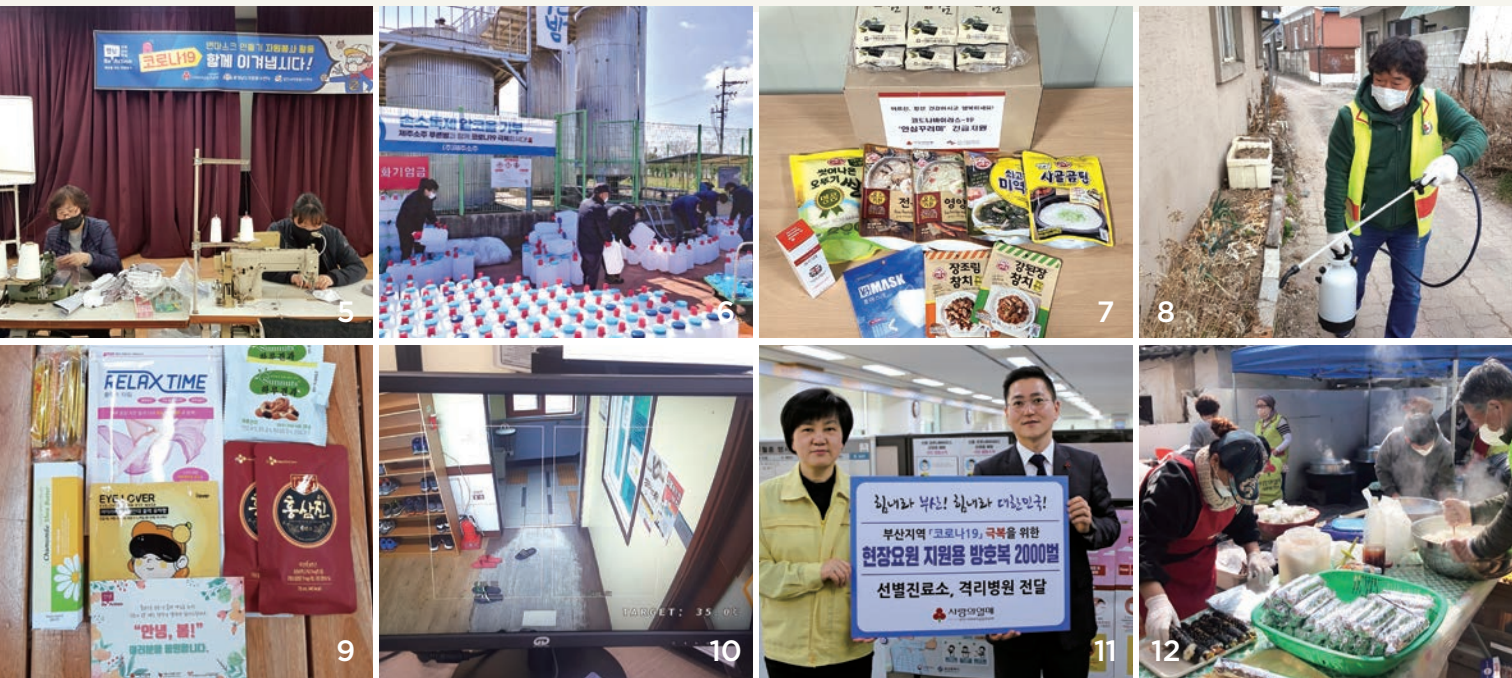
힘든 상황에 놓인 이웃을 위한 사랑의열매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랑의열매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49억 원의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특별 모금은 3월 22일 기준 742억 원이 모금됐고, 긴급 지원금 등 사랑의열매 자체 예산을 포함해 761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월 22일 기준 지원 완료한 금액은 349억 7,685만 원으로 마스크 790만 장, 위기 가정을 포함한 재난 취약층 40만 5,336명에게 생계지원 등을 완료했다. 지원 분야별로는 방역 및 위생 관리 지원 209억 7,166만 9,206원, 취약 계층 생계 지원 61억 6,300만 6,156원, 복지 서비스 공백 지원 38억 6,115만 2,230원, 의료진·자원봉사자·확진자 등 지원 40억 3,771만 9,363원이다.



이번에 모금한 성금은 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지역 내 확진자·격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단계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현장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 배분 파트너인 민간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과 사각지대를 우선으로 긴급 지원 계획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5 충남지역 어르신을 위해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있는 봉사자들 6 (재)제주주방역 소독용 알코올 기부 현장 7 대구·경북지역 어르신가정을 위한 식품 키트 8 원주지역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을 펼치는 나눔봉사단 9 서울지역 지하철 청소노동자를 위한 응원키트 10 노숙인 센터에 설치한 열화상 감지 카메라 11 부산지역 의료진, 봉사자를 위한 방호복 전달 12 경남지역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나눔

코로나19 지원 현장에서 전하는 “보내주신 성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지원

방호복, 식사·간식·건강식품 지원

“대구에 긴급 투입되는 의료진은 마스크, 방호복도 필요하지만 당장 갈아입을 여벌 옷과 생필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의사협회와 연계해 의료용품과 생필품 키트를 긴급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밀알복지재단 박경옥 팀장

방역 및 위생 관리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열감지 카메라, 공간 방역 지원

“저희 센터는 매일 100명이 넘는 노숙인이 이용하는 곳이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열화상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항상 발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한결 맘이 놓입니다. 무엇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감이 아주 높습니다.”

- 노숙인다시시기증합지원센터 김중대 팀장

복지 서비스 공백 지원 돌봄 대체 인력, 활동 지원, 생활 시설 확진자 임시 거처 등 지원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돌보던 가족이 자가 격리자나 확진자가 되면 당장 현실적 어려움이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긴급 지원으로 장애인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추가 인력과 위생 물품, 검사비 등을 지원받게 되어 한시를 덜었습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소연 사무총장

어려운 계층 생계 지원 위기 가정 생계비 및 대상자 맞춤형 식료품, 생필품 키트 지원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던 무료 급식이 중단되면서 취약 계층의 결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업에서 쌀국수와 생수 등 식료품을 지원해주어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동우 부회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아너 소사이어티 배우 김보성

“대구 시민을 위로하고
왔습니다. 의리!”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아너 소사이터, ‘의리남’ 배우 김보성이 이번엔 <사랑의열매> 4월호 표지 모델로 나섰다. 대구 시민뿐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을 전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자가 격리가 끝나자마자 <사랑의열매>와 함께한 김보성의 이야기. 글 강은진 사진 박충렬

대구,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뿐

언제 어디서 만나도 힘이 넘치는 배우 김보성이 이번엔 달랐다. 단단한 고무 덮개까지 붙은 마스크로 중무장을 하고, 행동도 최소한으로 줄이며 조심스레 움직였다. 표지 모델로 나섰으니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의리!”도 큰 소리로 외쳐주고 옷을 벗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 대구 시민을 위로한다고 한 일이 행여 자신의 공치사로 비칠까 걱정했다. 또 자가 격리가 끝난 직후여서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탓도 컸다. 김보성은 지난달 1일, 대구에 가서 특수 제작한 마스크 5,000장을 시민에게 직접 나누어주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겁나지 않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대구 상황이 심각해지는 소식을 듣고 그냥 무조건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을 위로해야겠다는 일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김보성은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만 했단다. 그래서 대구 방문 이후에는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걸 대구에 다녀온 다음에야 알았을 정도였다. 계산하지 않은 그의 진심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김보성이 직접 가본 대구는 어땠을까? 김보성은 대구 톨게이트를 나왔을 때부터 인적 없는 거리를 보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고 했다. 시장의 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간간이 앰블런스만 지나갔을 뿐이었다. 김보성이 “힘내라 대구!”라는 문구를 써 붙인 트럭 위에서 마스크를 나눠주기 시작하자, 그제야 비로소 하나둘 시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외쳐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트럭을 준비해 그냥 올라탄 거예요.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사람이 몰리면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그것만 신경 쓰면서 시민들을 만났죠.”

김보성이 만난 대구 시민은 많이 위축돼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이내 김보성에게 고맙다는 인사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라고 외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힘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트럭에 올라탔죠. 계획요? 제 계획은 진심뿐이었어요.



와 애쓰는다는 격려를 잊지 않았다. 멀리서 김보성이 트럭에서 마스크를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기사에 난 대로 제게 꽃과 편지를 주신 분이 젤 기억에 남아요. 얼마나 힘이 드냐고 안아드렸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눈물을 참는다고 참았는데… 고맙다는 인사가 담긴 편지를 볼 때는 결국 못 참고 울고 말았지요.”

의리는 결국 사랑이다

김보성은 2005년부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활동해왔다. 2014년에는 아너 소사이어티에 남자 연예인 최초로 가입했다. 또 시각장애인, 소

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왔다. 그뿐 아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어려운 곳이 있으면 어디든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왔다. 그래도 이번엔 트럭을 타고 직접 마스크를 나눠주는 김보성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리 특히 인상 깊었다. 어쩌면 조금은 거칠고 어설픈 그 모습이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할까.

“많은 봉사를 해봤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재난 상황이라 할 수 있고, 나라가 위기 상태잖아요. 평상시 평화로운 때와는 달랐으니까, 뭐랄까… 좀 더 온몸을 내던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이렇게 김보성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까? 왜 김보성은 늘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 김보성이 늘 외치는 짧은 한마디 ‘의리’는 무엇일까? 김보성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제가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때 비슷한 질문을 받고 ‘의리는 결국 사랑이다’라고 답했거든요. 제 가슴에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이 잘 된다고 할까. 아픈 사람들, 슬픈 사연들… 보고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1 김보성은 평소 노숙자, 소아암 환자 등에 기부하는 용도로 거래하는 마스크업체가 있어 급하게 마스크를 다량 발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 대구 시민과 기념 촬영 중인 김보성
3 2019년 4월,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를 위한 기부금 전달식



매일매일 기적을 꿈꾸는 사나이

보통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소망 같은 걸 묻게 된다. 김보성에게도 향후 계획이나 꿈을 물었다. 방송도 좋고, 나눔 활동도 좋고 뭐든지 말이다. 그런데 뜻밖의 답을 들었다. 물론 너무나 김보성다운 말이다.

“슈퍼맨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한 명 한 명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싶고, 힘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날은 꿈까지 꾸요. 제가 슈퍼맨이 돼서 모든 걸 해결해주는 거죠.”

김보성은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우는 장면을 이야



“
늘 슈퍼맨이 되는 꿈을 꾸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기적처럼 짠 하고
나타나서 싹 해결해주는 거죠.
제 진심이 하늘에 닿는다면 그런 기적이
한 번쯤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했다. 자신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면서 말이다. 그런 자신의 진심이 하늘에 닿는다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얼른 가라앉아야 하는데, 안 그러면 장애인 같은 분들은 정말로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거친 듯 섬세한 김보성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김보성에게 위로해주어 고맙다며 눈물 흘린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다. 김보성은 사랑의열매와 함께 계속해서 나눔 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이니만큼, 또 그런 단체의 홍보대사로서 항상 자부심을 가진다면서 말이다.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대한민국의 의리가 단합하고, 화합해서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시기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저 김보성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뛰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의리!”

김보성답게 의리로 마무리한다. 매일매일 기적을 꿈꾸는 이 사나이를 열렬하게 응원하고 싶다. 의리로! ❀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기술을 전합니다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 삶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 생활은 한층 편리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 기술 소외 계층에게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적정기술과 정보기술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배분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글이선희 사진각각나눔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헬스모아 서비스 프로젝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헬스모아(HealthMore)'를 개발했다. 앱에서 의약품과 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촬영하면 의약품 이름부터 효능·효과, 복용 방법, 주의 사항, 모양 등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 앓고 있는 질병을 등록해놓으면 의약품 검색 시 해당 질병의 주의 사항까지 알려준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구글플레이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다운하면 된다.



처방전에 있는 바코드를 촬영하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헬스모아 앱

2020년에는 매달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발전목표인 C-SDGs의 16개 목표 중 하나를 선정해 주요 배분 사업과 함께 소개한다. 이번 달은 9번 적정기술과 정보기술 격차 해소 지원을 소개한다.

9 적정기술과 정보기술 격차 해소 지원



시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 정보도서관 MAC 구축 사업

국내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구축된 정보 매체는 음성 정보 서비스, 웹 도서관, 모바일 도서관으로 나뉜다. 세 유형 모두 분리 운영하며, 제공하는 정보도 다르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동일한 정보를, 선호하는 매체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도서관 MAC(Mew Media Access Center)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 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 시각장애인이 도서에 있는 그림, 사진, 도표 등 시각 정보를 올바르게 취득할 수 있도록 터빙으로 재구성한 그림 해설 오디오 북 제작 사업도 시행했다. 그림 해설 터빙은 전문 성우들이, 본문 내용은 기부처 한국자산공사 임직원과 일반 낭독 봉사자들의 목소리 재능 기부로 녹음했다. 제작 완료한 그림 해설 오디오 북은 정보도서관 MAC를 포함해 시각장애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 1 전문 성우들이 도서 내용을 입체 낭독한 그림 해설 오디오 북 출판 기념회
- 2 정보도서관 MAC의 홈페이지

전국 장애 청소년 학습용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사업

장애 아동·청소년은 신체 기능과 인지능력의 제약, 이동 제한, 자세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게 사실 힘든 상황이다. 이는 학습 기회 박탈, 또래 집단과의 상호 관계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는 에스-오일의 후원으로 2010년부터 장애 청소년에게 학습용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10년 동안 564명 장애 청소년에게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 자세 보조 의자, 말하는 책 등 보조기기 871종을 지원해 그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돕고 있

다. 단순히 공부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가 아니라 보행, 의사소통, 치료 훈련, 컴퓨터 접근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 보조기기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 청소년이 잘 사용하도록 훈련을 돕고, 가정환경에 맞게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 청소년 41명에게 48품목 60개 보조기기를 지원한 2019년 전달식 모습

mini interview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소울의 엄 माम니다. 소울이는 선천성 시신경형성부전증이라는 희귀성 질환을 앓아 저시력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직 수술이나 치료 방법이 없어 정기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보조 기기가 아닌 일반 태블릿을 사용해보고, 2학년 때는 특수센터에서 탁상형 독서 확대기를 대여해 사용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겐 작동 방법이 어려웠고, 화질이나 선명도가 많이 떨어져 아쉬웠습니다. 또 1년마다 대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대기가 있으면 그마저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통해 이 사업을 알게 되어 탁상형 독서 확대기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외 장애 청소년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과 글로벌 ICT 파트너십을 위한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지난 2019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진행된 이 대회에 한국 및 아세안 등 20개국 장애 청소년과 정부, 시민사회 관계자 약 300명이 참가했다. 보건복지부와 (주)LG가 주최했고, LG전자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사랑의열매가 후원했다. 사전 이러닝 교육과 20개국 모두 예선전을 개최함으로써 대표 선발과 정보 격차 해소 과정을 체계화했다.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에선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검색과 MS 프로그램 실력을 평가하는 개인전, 영상 촬영과 편집 능력, 자율 주행 자동차 조립 및 운영을 평가하는 단체전까지 총 4개 종목을 진행했다. 이 대회를 통해 장애 청소년의 삶에는 긍정적 변화가 찾아왔으며, 인도네시아·인도·태국 등 정보 격차에 대한 국가적 관심까지 이끌어냈다.

1 장애 청소년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우정을 나누는 세계 유일의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2 부산에서 열린 2019년 대회 모습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종합 우승 수상 소감



페르난데즈 플로렌즈 자임(Fernandez Florenz Jaime, 17세, 자페·시각장애, 필리핀)

“대학에 진학해 IT 분야를 전공하며 유튜브 스트리머가 되고 싶었지만, 장애로 인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케냐 시각장애인 지원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물품 기부 및 교육 운영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비교적 높은 경제 수준과 교육 인프라를 갖췄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 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다. 이 사업을 통해 ADRF(아프리카아시아 난민교육후원회)에서는 시각장애가 있는 대학생에게 점자 스마트 워치를 제공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 스마트 워치로 점자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 IT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것. 또 엔케리안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300명에게 시각·청각 장애 체험과 인식 개선 교육도 매월 1회 진행했다. 교육 후 이전과 비교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0% 이상 개선되는 등 어릴 때부터 장애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1 엔케리안 학교에서 진행한 장애 인식 개선 교육
2 케냐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한 점자 스마트 워치

소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삼성SDS 코딩캠퍼스'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코딩 학원과 교습소가(2017년 4월 30일 기준) 2년 사이 8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코딩 열풍이다. 한편으론 교육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아이도 상당수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서는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내 교육 혜택 기회가 적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총 216명에게 양질의 코딩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 강사 교육을 받은 대학생 강사와 전문 강사가 함께 기관을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참여 아동 대비 충분한 강사 인원을 파견하고,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업 덕에 아이들은 소프트웨어 및 코딩과 관련한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도 전체 측정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학습 효과를 보였다.



1 삼성SDS 코딩캠퍼스 강사 양성 교육을 받은 대학생 강사들
2 충분한 인원의 강사를 파견해 실습 중심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사회 非적응 청소년의 약물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가상현실 치료 프로그램



약물 사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치료를 진행한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약물 사용 고위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치료를 진행한다. 뇌 기반 인지 재할 프로그램을 실시해 청소년에게 약물 사용의 위험성을 인지시켜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약물중독 문제가 있는 1년 동안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1회는 개별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 치료, 1회는 집단 프로그램 참여로 구성해 각각 12회기 진행한다. 국립 숲체원에서 're-start 숲캠프(1회)'를 통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체험하고, 약물 고위험 상황에서 약물 거절을 훈련받는다.



발달장애인과 부모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평생 설계 모바일 배움터 '채비.net'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영원한 부모'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녀가 40~50세가 되기 시작하면 부모의 돌봄 체계가 무너진다. 이렇듯 부모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더라도 발달장애인 자녀가 지역사회 안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 보장, 주거 보장, 법정 보장 등 계획을 세워 위기에 대처하도록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이 바로 평생 설계다.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서는 모바일 앱인 '채비넷'을 구축해 생애 주기에 맞춰 체계적인 평생 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 효율적이며, 구체적으로 실천 과정을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체계 안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가이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생 설계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이다. ❀



생애 주기에 맞춰 체계적인 평생 설계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웨어러블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혁신 시스템 스마트 헬스 모니터링 '골든서클'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에서는 2019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건강 팔찌를 활용해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다.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면 심박 수, 보행 수, 소모 칼로리 등 건강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돼 정보가 누적된다. 이를 토대로 매월 1회 질환별·연령대별 맞춤형 개별 사례 관리를 통한 검사 결과 분석, 상담이 이루어졌다. 또 동일한 질병군 또는 건강 관심 분야에 따라 집단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올해 사업부터는 노인 종합복지관 세 곳과 함께 총 3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확대 건강을 더한 여가 정보 시스템의 성과 분석을 통해 모델링 사업으로 확산하고자 한다.



- 1 스마트 팔찌와 연동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는 건강 프로그램이 있어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 2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질환별 또는 건강 관심 분야에 따라 나는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강릉 최초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탄생
꼬막비빔밥 최초 개발한 '엄지네포장마차' 김미자·최근영 대표

“다음 목표는 가족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에요!”

꼬막비빔밥을 처음 만든 자타 공인 원조집 '엄지네포장마차' 대표 김미자·최근영 부부가 강릉 최초로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었다. 갖은 고생을 다 겪고 이뤄낸 성공 앞에 부부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 도울 수 있어 행복하다면서. 글 강은진 사진 이승재



강릉 최초 부부 아너 탄생

강릉에서 최초로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다. 꼬막비빔밥의 성지라 불리는 강릉시 포남동에 위치한 '엄지네포장마차' 대표 김미자·최근영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엄지네포장마차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꼬막비빔밥이라는 메뉴를 처음 만든 식당이다. 이곳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강릉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엄지네포장마차의 꼬막비빔밥 맛을 보려고 찾아오는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이다. 주말이면 3~4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은 예삿일이다. 지금까지 서울과 세종, 충북 등 9개 분점을 냈고, 서울의 유명 백화점뿐 아니라 미국까지 진출했다. 부부는 시장 한 귀퉁이 포장마차에서 팔던 꼬막비빔밥이 강릉을 넘어 서울, 미국까지 진출해 팔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고의 꼬막비빔밥을 만들어 번 돈을 쓰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기부였다고 덧붙였다.

“평소 친분이 있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분을 통해 처음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를 알게 됐어요.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해주시는데, 그 순간 이거다 싶더라고요. 설명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했죠.”

기부를 결심한 순간을 이야기하는 김미자 대표의 목소리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부부가 함께 가입을 한 것일까?

손님이 한 기부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은 아내인 김미자 대표가 먼저 했다. 김미자 대표의 가입식이 있던 날, 남편 최근영 대표가 따라 나섰다. 부부 아너로 가입하고 돌아왔다는데, 대체 어찌 된 사연일까?

“아내가 가입을 하면 강릉에서 아홉 번째래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두 자릿수인데, 강릉만 아직 한 자릿수라는 거에

“기부를 하고 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너 소사이어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뿌듯하며 보람되고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 자꾸 주변에 권하게 되더라고요.”





요, 아너 회원이. 그 순간 아내가 뭐 멀리서 찾을 거 있냐고 하더라고요.(웃음) 그렇게 부부 아너가 됐습니다.”

같이 가입하고 나서야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있다는 걸 알았다며 최근영 대표는 웃는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을 부부가 동시에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건만, 부부는 덤덤하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 기부가 아니라며 공을 손님에게 돌린다.

“손님들이 좋은 일 하셨다고 인사를 건네시면, 저희는 그래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손님이 하신 기부라고, 저희가 한 일이라곤 음식을 만들어드린 것밖에 더 있나요. 손님이 안 팔아주셨으면 어떻게 돈을 벌고 기부를 하겠어요.” 부부는 손님이 한 기부라고 선을 긋는다. 부부에게 공치사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사업 실패 후, 지독한 가난 겪기도

최근영 대표는 원래 건설사 임원까지 올랐다 퇴사한 후 건설업체를 설립해 큰 성공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외환 위기 때 부도가 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부부는 0.7톤 트럭에서 떡볶이, 순대 등을 팔다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틸 수 없어 강릉까지 내려갔다.

“강릉에 와서도 3~4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3층 옥탑 월세방에 살았는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겨울이면 보일러에 기름 채울 돈이 없어서 한 말씩 사다가 겨우 씻을 물만 데우고, 전기장판 깔고 잠깐씩 눈만 붙이면서 살았어요.” ‘사모님’ 소리를 듣고 살던 김미자 대표는 삼겹살집에 처음 아르바이트 간 일도 떠올렸다. 식당의 갖은 지저분하고 힘든 일을 다 하고 돌아와 5일을 앓아눕기도 했다고. 하지만

“

재기를 해야겠다,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잠도 아껴가며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부부는 서로 원망한 적이 없었다. 아니, 하루하루 살기 바빴기 때문에 원망할 시간도 없었다고 한다.

“아내에게 정말 고맙죠. 험한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얼마나 억척같이 일했는지, 손에 핏줄이 다 터질 정도였어요. 아침이면 양치질을 못 할 정도였죠. 손이 다 터져서 주먹을 못 쥐니까…”

남편 말을 듣던 김미자 대표는 얇은 미소를 짓는다. 오히려 식당 일도 안 해본 남편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설거지 더미를 보고 알아서 고무장갑을 끼는 모습에 고마웠다면서 말이다.

아너 소사이어티 많이 홍보하고 싶어

부부에게 큰 성공을 안겨준 꼬막비빔밥의 탄생 스토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엔 꼬막을 삶아서 술안주로 팔았어요. 그때 남편이 서빙을 봤는데, 탁자에 수북하게 쌓인 꼬막 껍질을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껍데기를 일일이 다 까서 양념에 무쳐서 내봤는데, 손님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꼬막비빔밥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엄청났다. 순식간에 많은 방송에도 소개돼 전국구 맛집으로 등극하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받았다. 너도나도 부부의 신 메뉴를 베껴고, 큰 가게로 이전하면서 처음 장사하던 가게

를 선의로 어려운 이웃에게 넘겼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원조라며 배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씁쓸했다고 한다. 김미자 대표는 방송에도 나가지 말고 조용히 장사만 할 걸 그랬나 보다면서 사람 좋게 웃는다.

“성공했으니 하는 말이지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부부는 사실 돈에 큰 욕심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있음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누구보다 돈이 없어 불편해봤으니까. 아너에 가입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부부의 꿈은 사업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부부 아너 가입을 계기로 강릉의 또 다른 아너 회원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또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에게 난방비도 후원한다. 부부는 지속적으로 나눔 활동을 이어갈 생각이다.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나니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도 몰랐던 것처럼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몇 분이 하시겠다고 했어요.(웃음)”

최근영 대표는 앞으로 아너 소사이어티를 많이 홍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또 슬하에 남매를 둔 부부는 가족 아너의 목표도 살짝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정말 열심히 살아갈 계획만 가진 부부구나 싶다. 부부가 만들어낼 다음 성공이 궁금해진다. 🍀



대표 메뉴인 꼬막비빔밥과 육사시미를 소개하는 최근영·김미자 부부

사회적협동조합 '나무와열매'

“장애아 시간제 돌봄으로 가족 구성원의 행복도 찾아요”

장애아 부모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까? 현실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나무와열매’는 이 같은 장애아 부모의 꿈이 실현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장애아 돌봄 센터를 만든 것이다. 글 강보라 사진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나무와열매



사랑의열매 후원으로 봄나들이를 떠난 나무와열매 조합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1

1 장애아와 비장애아는 물론 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는 놀이 체육으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다.

2 장애아도 보조 교사의 도움으로 요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는 것도 중요한 수업 중 하나다.

급한 일이 생기면 누구나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하다. 방학이나 방과 후에 갈 곳 없는 장애 아동은 더욱 그렇다. 정부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없다. 사랑의열매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장애아 가정의 현실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 것이다.

아동부터 학령기 이후 아이를 돌보는 나무와열매는 장애 아동의 부모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잠시 맡겨두고 마음놓고 외출할 수 있는 곳이다. 장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참여자의 호응도 높다.

부모 마음으로 시작한 장애인 시간제 돌봄 센터

나무와열매는 장애 아동 부모가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시간제 돌봄 센터이다. 장애·비장애를 통합해 운영 중이며 긴급, 일시, 상시 돌봄 등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용 시간

은 평일·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요금은 1시간 기준 6천원이다. 원이다. 보호자 동반 시에는 50% 할인한 4천원을 받는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 시댁과 친정 이 지방이라서 아이를 잠깐이라도 맡길 곳이 없었죠. 비장애 아이들의 공동 돌봄은 많은데, 장애 아이들의 공동 돌봄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장애아 부모들이 서로 품앗이 돌봄을 진행하며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 지금의 돌봄 센터를 만들게 됐죠.” (김경예 센터장)

나무와열매의 시작은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체 사업인 ‘이심전

심 부모마음’이었다. 주민 참여 사업으로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전을 경험한 것이다. 당시 발달장애·자폐·뇌병변 등으로 아이들의 장애 유형이 달랐는데, 자신의 아이와 다른 유형의 장애아를 접하고 돌보면서 부모도 공동 돌봄의 가능성을 엿봤다.

나무와열매의 가장 큰 장점은 장애아의 부모가 주체가 되어 ‘엄마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다. 보호자 동반 시 50% 할인하는 것도 보호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법이다. 내 아이를 보면서 다른 아이도 자연스럽게 돌보는 것. 부모는 이렇



2



1 스포츠 체육에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아이들. 전문 강사 채용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다.
2 센터 입구 모습. 길음역 4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3 나무와열매 센터의 돌봄 공간. 이곳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게 보조 참여자가 된다. 나무와열매는 전문 교사 외에 상시로 부모와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받고 있다. 누구든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이다. 보통 시설에서는 접할 수 있는 사람이 교사뿐이라 만나는 인원이 한정적인데, 나무와열매는 다양한 사람이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먹고 노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여러 사람과 어울리고 접한 아이는 사회성이 발달하고, 부모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좋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놀고 배우며 어울리는 세상을 꿈꾸다

나무와열매에서는 정책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돌봄을 채택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생활하는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다. 생활 속에서 장애 인식 교육을 하는 것이다. 어른들의 우려와 달리

아이들은 서로 잘 어울린다.

“장애도 접할 기회가 없으니 경계와 편견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애들도 낯서니까 ‘재는 걷는 게 이상해’라고 생각하다가 조금씩 알아가고,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장애 친구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돕기도 하게 되죠.” (김경예 센터장)

장애아와 비장애아는 물론 장애 아동끼리도 자신과 다른 유형의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나무와열매는 사랑의열매의 지원으로 여러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재능 기부 형식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장애 아동 전문 지도자들이 진행하게 된 것이다. 기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종류도 한층 많아졌다. 프로그램은 스포츠 체육, 스트레칭 및 관절 운동, 미술 치료, 놀이 치료 등이며 장기 자랑,



구연동화 같은 나무와열매의 자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나무와열매 담당자는 “프로그램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서 나무와열매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며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와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성북구 바우처 사업(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제공 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었어요. 민간에서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앞으로는 더욱 안정감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나무와열매는 이렇듯 장애아 돌봄을 넘어 함께 놀며 배우고 돌보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활동을 꿈꾼다. 부모가 곁에 없더라도 협동조합의 힘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여기에 각 동마다 장애아 돌봄터를 마련해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형성해나가고자 한다. 이제 그 시작의 첫 삽을 떴다. 완공까지 모두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며, 나무와열매가 쑥쑥 크기를 바란다. 🍀



사회적협동조합 나무와열매 김경예 센터장

“장애인의 엄마도 사회생활 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사랑의열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무와열매 센터장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 김경예입니다. 이 짧은 편지를 통해 장애인 시간제 돌봄이 각 가정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중증 장애인 아이가 태어나면 비장애인인 형제자매에게도 이 어지게 마련입니다. 나무와열매를 방문하는 가정 중 둘째가 축구를 하는 가정이 있어요. 엄마는 둘째의 경기 모습을 보고 싶었지만 돌발 행동이 잦은 첫째 때문에 늘 축구장 주차장에서 대기했다고 해요. 축구장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엄마는 형이랑 있을 테니 축구하고 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 센터를 알게 되어 첫째를 맡겼어요. 엄마 손을 잡고 축구장으로 나서는 첫날, 그 집 둘째가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너무 행복하고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는데 지켜보는 저까지 어찌나 기쁘던지요. ‘그래, 이게 우리 센터의 목적이었지’ 하는 마음속 울림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나무와열매에 정기적으로 아이를 맡기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부모님도 계시답니다.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떠안고 사는데, 나무와열매 돌봄 센터를 이용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제 돌봄 하나로 장애인 가족의 삶이 참 많이 달라졌죠? 앞으로 더 많은 나무와열매가 생겨서 장애인 엄마도 당당히 사회생활을 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꼭 믿어요!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의 행복을 찾아주는 정다운 이웃”

한국서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전력을 다한다.

이들은 전력 생산 못지않게 지역 발전에도 각별한 노력과 애정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 사랑의열매와 손잡고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과 주거 지원 사업 등

행복한 태안을 위한 나눔을 실천 중이다. 글강보라 사진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지난 2019년 10월 11일에 열린 행복한 구들방&행복 충전 푸드 트레일러 오픈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주)(이하 서부발전)은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에너지 주역으로, 환경친화적 발전소 운영으로 국민 행복을 창조하는 에너지 기업이다. 이들은 국토 환경과 지역 환경 발전을 발전소 운영 방침으로 정하고 인간, 기술, 환경의 조화로 최고 에너지를 창출한다는 기업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력 생산 외에도 서부발전이 주력하는 사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서부발전이 자리한 태안군과의 상생이다. 여기서 상생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일자리를 고민하고, 기업과 지역민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서부발전은 '에너지로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는 행복 파트너'를 사회 공헌 비전으로 정하고, 지역과 동반 성장을 꿈꾸고 있다. 특히 서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태안발전본부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급여 우수리·에누리 성금으로 따뜻한 태안을 만드는 데 일조해 '2019년 The Best 착한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충남 사랑의열매는 이 성금을 태안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복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따뜻한 일자리로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다

충남 사랑의열매는 서부발전과 함께 '행복한 구뎃방'과 '행복 충전 푸드 트레일러'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서부발전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랑의열매에 4,3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충남 사랑의열매는 이 성금으로 태안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해 발전소 내 자활사업단 2개와 일자리 7개를 창출했다. 서부발전과 협력사 직원들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착한소비를 실천해 참여 주민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있다.

태안 지역의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



1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 카페 '비 마이 프렌드' 태안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이 지적장애나 지체장애가 있는 20대 청년들이다.

극적이다. 태안은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26%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서부발전은 이러한 지역 특징을 고려해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고령자 친화 기업 시니어 행복 드림'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 사업은 식품 가공 및 생산 시설을 설립해 지역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부발전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의 공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 10월, 2019 노인 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 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정다운 이웃

충남 사랑의열매는 서부발전과 함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지역민을 위한 '정다운 이웃'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서부발전이 충남 사랑의열매에 지원금을 기탁해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이며, 지난 2019년 10월 말까지 65호점을 지원했다. 노화된 지붕을 리모델링하고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 도배장판과 싱크



1

대 교체 등을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업 전기 분야 종사자로서 직원들의 전기 기술 재능 기부를 활용한 봉사 활동도 함께 진행 중이다. 배려 계층의 노후 조명등과 절전 스위치를 교체하고, 누전·단락 등 전기 화재 위험을 정비해 안전한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는 등 태안의 정다운 이웃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장애인을 사회인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

태안 동문리에 위치한 카페 ‘비 마이 프렌드’ 태안점은 서부발전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기반



- 1 서부 위피스쿨은 태안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정보, 슬럼프 극복법 등 대학 입시에 필요한 내용을 대학생 멘토에게 전수받을 수 있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한다.
- 2 주거 환경 개선 공사 현장. 낡은 지붕 수리, 싱크대 교체 등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 3 태안본부는 태안 지역이 농어촌 마을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농어촌 마을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 협약’ 모습이다.

으로 (재)행복한나눔에서 운영한다. 착한 카페를 지향하는 이곳은 공정 거래로 생산한 원두로 커피를 만들 뿐 아니라, 복지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적은 농촌 거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곳의 바리스타는 지체장애 2급, 지적장애 3급, 지적장애 2급 등 장애가 있는 20대 청년들이다. 이들은 카페에서 근무하며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장애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태안 지역 농업과 상생하는 농어촌 지원 사업

서부발전은 지역 고유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태안은 충남 화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꽃의 마을이다. 서부발전은 ‘WP 소셜 플라워’ 사업으로 태안의 화훼 농가를 지원한다. 침체된 지역 화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훼 농가에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꽃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화훼 농가 소득이 늘었고, 원예 치료에 필요한 어르신 인력 1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다.

서부발전에서 구축한 ‘스마트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발전소의 복수기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배수를 양식장과 주변 농가에 보내 농가



2



3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한 것. 지난 2018년 12월 축조한 스마트팜은 태안 지역 24개 마을에 119억 원의 소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한다. 또 '농촌 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는 지역 대학생과 귀농·귀촌 인력 등을 사업 관리 전문가로 양성하고, 저탄소 시설을 지원해 환경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알짜 사업이다.

지역의 미래를 키우는 청소년 교육 지원

농어촌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서부 위피스쿨', '꿈너머 꿈 진로 멘토링', '전기교실' 등 서부발전의 교육 재능 기부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부 위피스쿨은 전국 우수 대학생 멘토들이 태안 지역 초·중·고교생에게 학습 지도, 진로 상담, 정서 교류를 나누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9년까지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위피스쿨을 거쳐갔는데, 참여 학생의



● 4 서부발전 교육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서부 위피스쿨 6기 수료식. 전국 우수 대학생들이 지역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을 할 뿐 아니라 정서적 교류도 나누고 있다.

호응도 좋다.

위피스쿨 멘토들은 자신들이 겪고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습 지도, 진로 상담, 정서 교류, 전공 분야 창의 융합 교육 등에 필요한 내용을 직접 기획했다. 또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입시 정보와 학습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꿈너머 꿈 진로 멘토링은 서부발전에서 근무하는 명장들이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무 기술을 전수하고, 산업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취업에 꼭 필요한 실무를 전문가에게 직접 배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갈수록 섬세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속한 지역의 현실을 고민하고, 기업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한국서부발전의 사회 공헌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다. 🍀

20여년간 공임비 전액 기부해온 원일대장간 이승태 대표

“칼 갈고 낫 갈아 기부하니 제 마음이 제일 반짝거리더라고요!”

칼의 생명은 빛깔이라고 한다. 은백색의 날카로움을 위해 갈고 또 간다. 그렇게 셀 수 없이 연마기 앞에서 땀을 흘려야 비로소 칼은 매끄럽게 빛난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반짝이는 칼날보다 칼을 간 대장장이의 얼굴이 더 빛난다. 원일대장간 이승태 대표의 이야기다.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모금함이 있는 대장간

제주시 민속오일장과 한림 민속오일장에서 원일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태 대표는 사랑의열매와 오랫동안 함께해왔다.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아 대장간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랑의열매 모금함을 준비해 지금까지 꾸준히 기부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승태 대표의 기부 방법은 단순하고 묵직하다. 대장간에서 칼이나 낫, 호미 등 각종 농기구를 갈아주고 받는 공임비를 대장간에 비치한 모금함에 모아 일정 기간마다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부를 이어나온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간다.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모금이 제대로 되긴 할까, 모금한 돈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니 공임비가 5,000원이라면 1만 원을 주시면서 동참해주시기도 하면서 적은 돈들이 차곡 차곡 쌓이더라고요.”

이승태 대표는 오히려 손님들 모습에서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힘든 나를 일으켜 세운 나눔

이승태 대표는 어떻게 이런 기부를 시작하게 됐을까? 더욱이 생업에서 말이다.

“아버지가 하시던 대장간 일을 제가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대장간으로 돌아왔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죠. 그때 문득, 이왕 어렵게 시작하는 일... 좋은 일이라도 해보자 싶더라고요.”

사실 이승태 대표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큰 사업을 하던 화려한 과거가 있다. 하지만 사업에 크게 실패하면서 깊은 좌절도 맛봤고, 아버지의 대장간 일을 이어받기까지 큰 용기도 필요했다. 그때 이승태 대표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좋은 일이라도 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어쩌면 제가 나눔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재기를 위해 필요했던 용기를 나눔이 채워주었거든요.”

기부하면 여유가 생겨

보통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승태 대표는 어려운 상황에서 오



사랑의열매에 모금을 기탁하고 있는 이승태 대표(왼쪽)

히려 기부를 시작했다. 그는 여유가 있어 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를 해야 비로소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니 그렇더라.

“나중에 먹고살 만해지면 기부해야지 했으면 저는 평생 못 했을 것 같아요. 모금함에 직접 돈을 모아보니 그래요. 적은 돈이라도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모금함을 처음 가득 채웠을 때, 가슴 저 밑에서 올라오던 뜨거운 무언가가 여전히 이승태 대표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 있다. 이승태 대표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오늘, 지금, 바로 옮기라고 조언한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다 된다면서 말이다. ❀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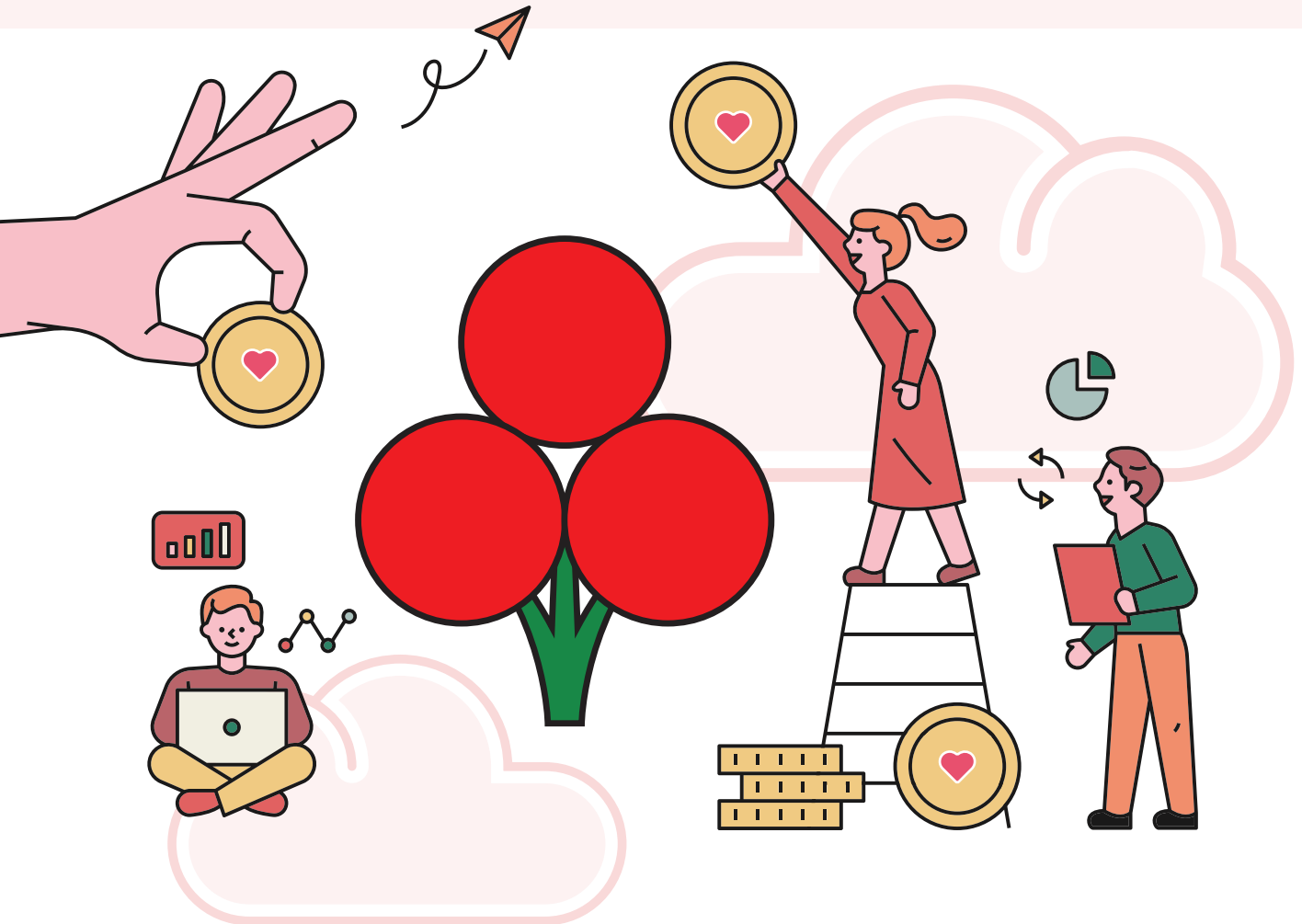
2016년



2014년



2003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좋은 생각, 모두 모여라

사랑의열매 크라우드 펀딩

지난 2019년 11월 사랑의열매 공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심플한 디자인,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 기부 편의성 증대 등 홈페이지의 달라진 모습에 긍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사랑의열매가 새롭게 도전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기부자와 나눔 기관을 연결하는 또 다른 방식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신개념 투자 방식이다. 사랑의열매는 크라우드 펀딩을 선보이며 몇 가지 변화를 꾀했다. 모금이 끝난 모금액의 사용처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사회복지 기관 등 나눔 기관이 직접 파악해 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모금 활동으로 펀딩을 진행한다. 이는 희망2020나눔캠페인에서 도입한 '나눔 목표에 따른 모금 활동'이란 사랑의열매의 방향성에도 일치한다. 사랑의열매는 좋은 기획과 새로운 지원 사업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모금 활동을 진행할 여력이 부족한 사회복지관을 주목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들의 사업을 홍보해주고, 자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또 특정 이슈에 관심 있는 기부자와 대상자, 사회복지관이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까지 맡았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는 모금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부금의 정확한 사용 내역까지 알 수 있으니 모두가 원하고 기다린 모금 방식이 아닐까.

4월부터 비영리 기관 사업계획서 신청



사랑의열매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클라우드 펀딩을 만날 수 있다. 사회적 의미와 필요성을 고려해 사례를 선정한 후 현장감 있는 스토리와 이미지를 담아 클라우드 펀딩으로 진행한다. 4월부터 비영리 기관의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는다. 좋은 사업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이에 대해 많은 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기관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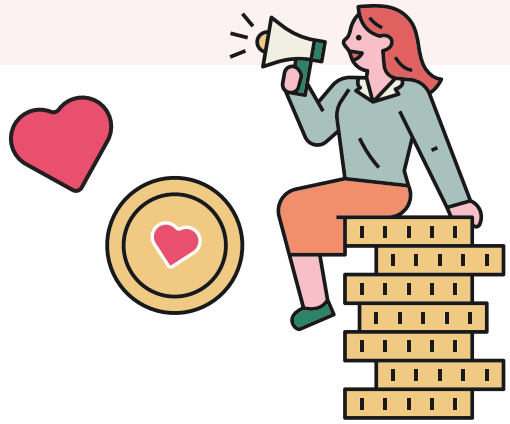
www.chest.or.kr

새로운 사회복지 영역 확대를 위한 시도

사회복지 하면 흔히 현금, 현물 등을 전달하는 기초 생계 지원 같은 전통적인 기초 복지 분야 사업을 떠올리기 쉽다. 사랑의열매 클라우드 펀딩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나 보다 다차원적인 사회복지 분야 사업을 선도하고 육성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각자 필요에 의해 구성하는 협동조합은 오늘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인 경우가 많다. 이런 새로운 사회복지 영역을 사회가 체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선 선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랑의열매에선 클라우드 펀딩 사업이 이런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랑의열매 클라우드 펀딩이 특별한 이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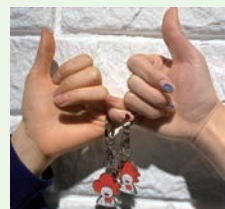
- 1 **사랑의열매가 끝까지 함께!** 사랑의열매가 모금 활동과 사업 진행 및 사후 관리까지 함께 하며 기관 홍보와 사업 내용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준다.
- 2 **홍보는 사랑의열매가** 사랑의열매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많은 잠재 기부자에게 사업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사랑의열매 클라우드 펀딩 사업은 같은 시기에 동시 모금을 진행하는 사업의 건수가 많지 않아 홍보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매칭금 지원으로 부담은 줄이고** 목표 금액별 실제 모금된 금액에 따라 사랑의열매에서 매칭금을 지원해준다. 사랑의열매는 내부 심의를 거쳐 필요한 사업을 신중하게 선정하는 만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4 **축적된 노하우로 역량 강화**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는 동안 사업 계획 수립과 홍보, 결과 보고까지 사랑의열매의 체계적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다. 국내 최대의 모금·배분 전문 기관으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다른 기관들과 함께 공유하며, 사회복지 기관의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사랑의열매 클라우드 펀딩 '신림 클래스'



클라우드펀딩 리워드

REWARD 사랑의열매 키링

1만원 이상 클라우드펀딩에 참여 해주신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소정의 리워드를 전달해드립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신림 클래스'의 모금이 진행 중이다.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탐색 프로그램, 업무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사용할 사업비 550만 원을 4월 30일까지 모금할 예정이다. 1만 원 이상 참여하면 사랑의열매 키링을 리워드로 받을 수 있다.



강원119행복기금

강원 소방공무원이 불 지핀 뜨거운 이웃사랑

강원도 소방공무원의 활약은 화재 현장 밖에서도 계속된다.

자발적 모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화재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의 손길을 펼쳐온 것.

이들이 만든 강원119행복기금과 그동안의 지원 활동에 대해 알아봤다. 글 김현정 사진 사랑의열매

강원소방본부는 지난 2014년 강원 사랑의열매, 강원도자활센터와 함께 협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주로 화재 취약 주택, 피해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화재 예방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다. 이 외에도 화재 피해 이재민을 위한 긴급 구호 키트 보급과 심리 상담 지원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강원119행복기금'으로 충당한다. 이는 강원도 소방공무원이 자발적으로 1구좌(1,190원) 이상을 기부해 조성한 기금으로, 강원 사랑의열매가 위탁 관리 중이다. 강원119 행복기금은 조성 이후 2020년 2월까지 총 4억 1,500여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 가운데 2억 9,500여만 원을 지원 사업에 사용했다. 강원 지역 소방공무원의 기부로 시작한 이 기금은 뜻있는 관내

개인 기부자들이 참여하면서 지역사회로 확산돼 총기부자 수는 5,113명에 달한다. 개인 기부자는 강원 사랑의열매를 통해 강원119 행복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생명 살리고 받은 상금 기부한 강원도 소방관들

지난 2018년, 화재 현장에서 헬멧이 녹아내리는 불길을 뚫고 3세 어린아이를 구조한 홍천소방서 김인수, 김덕성, 박종민, 이동현, 박동천, 최재만 소방관이 강원119행복기금에 의인상 상금 4,000만 원을 기부했다. LG복지재단에서 받은 LG의인상 상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화재 피해 아동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강원119행복기금에 기탁한 것. 화재 현장에서 보여준 희생정신만큼 아름다운 나눔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감동을 안겨줬다.



강원119행복기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119행복하우스 시공 화재로 인해 주택이 반소 혹은 전소된 가구를 위해 신축 주택을 건설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2015년 1가구, 2016년 2가구, 2018년 1가구를 지원해 총 4가구가 화재로 잃어버린 집과 함께 희망을 되찾았다.

화재 피해 이재민 긴급 구호 키트 보급과 심리 상담 지원 화재를 당한 피해자에게 당장 필요한 담요, 세면도구, 취사 도구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 키트를 배부한다. 또 불의의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 검진비를 지원해 심리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화재 예방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저소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기초 소방 시설을 지원한다. 전기 시설, 배선 등 전기공사를 비롯해 보일러 보수 등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며, 가스 타이머와 소화기 등을 설치한다.



화재 피해 주민 119나눔사업 진행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강원상품권을 지원한다. 강원상품권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의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2019년에는 100가구가 강원상품권을 지급받았다.

저소득층 가구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화재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가구에 주택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2016년 430가구의 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

- 1 화재로 집을 잃고 원룸 생활을 하던 부녀를 위해 지은 119행복하우스 4호의 준공식 모습.
- 2 강원119행복기금으로 제작한 긴급 구호 키트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했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기부자 주목 선한 영향력 & 참여형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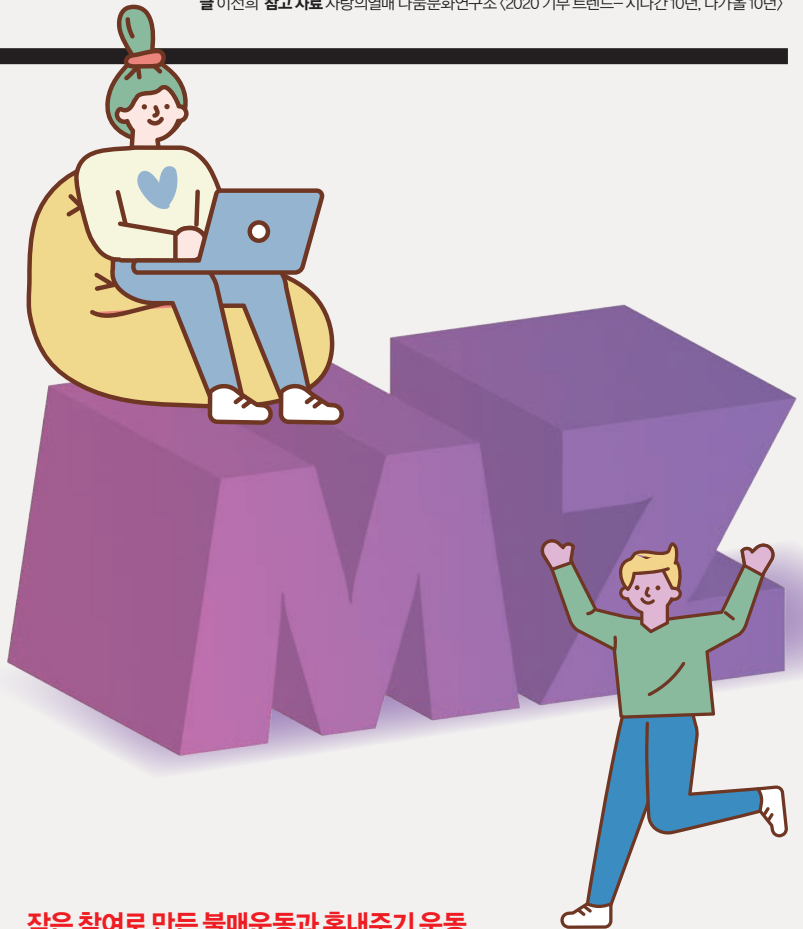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2015년부터 매년 '기부 및 사회 이슈 트렌드 분석'을 통해 한 해의 기부 트렌드를 발표한다. 2020년에는 7개 기부 트렌드를 소개했는데, 이 중 연구진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꼽은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본다.

글 이선희 참고 자료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2020 기부 트렌드-지나간 10년, 다가올 10년>

2020 기부 트렌드 ①

MZ세대의 작은 참여,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

'밀레니얼의 기부, 나를 드러내는 착한 소비'는 2019년 기부 트렌드 중 하나였다. 그 연장선에서 올해는 MZ세대의 적극성을 더 강조하는 '작은 참여,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기부 트렌드로 선정되었다. MZ세대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2010년생까지를 아우르는 상당히 큰 세대 범위이며, 우리 사회의 트렌드 형성자로 자리 잡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 참여에 거부감이 없다. 특히 2016년에는 촛불 집회라는 작은 참여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목격하기도 한 이들도 있다.



작은 참여로 만든 불매운동과 혼내주기운동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한국의 핵심 산업 군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를 수출통제 하자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한편 같은 해 4월에는 불매운동처럼 소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사회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방향은 불매의 반대인 '구매해서' 혼내주기 운동이 화제를 모았다.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판매자를 '돈으로 혼쭐 좀 내줘야겠다', '사장님을 더 바쁘게 해서 혼내주겠다'는 등 재치 있는 대응이 (구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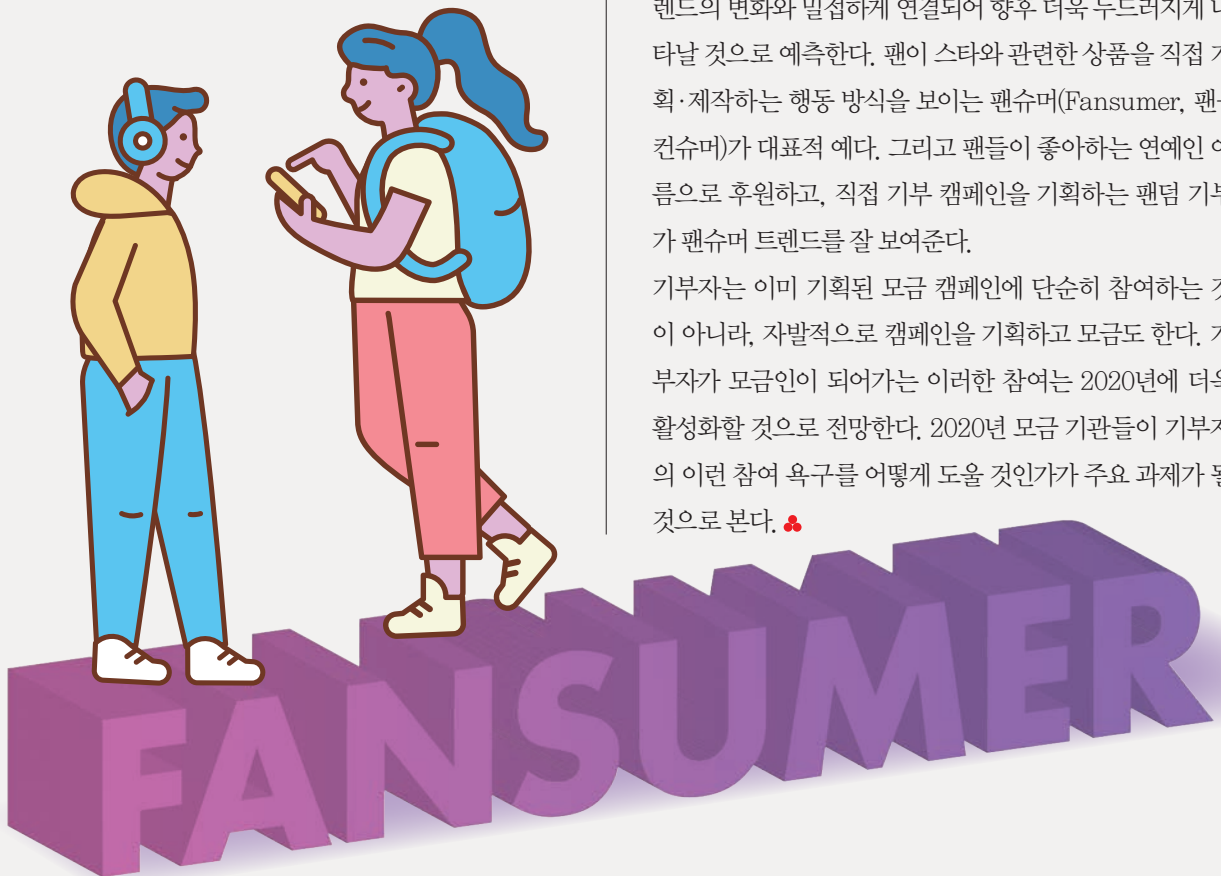
서) 혼내주기 운동으로 발전한 것. 불매운동과 혼내주기 운동(팔아주기 운동)의 중심에는 MZ세대의 자발적인 작은 참여가 있다. 둘 다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은 참여이지만, 그 영향력은 실로 크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지금까지 진행 중이며,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다. 혼내주기 운동 역시 매출이나 이슈화 측면에서 영향력이 상당했다. MZ세대는 이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과 자발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MZ세대의 이러한 작은 참여가 과연 기부 방법과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0 기부 트렌드 ②

참여형 기부: 참여하기에서 '팬' 짝기로

기부자가 단순 참여자에서 '팬'을 만드는 판 조성자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연구진은 참여형 기부를 두 번째 기부 트렌드로 선정했다. '참여형 기부'에서 주목하는 '참여'는 모금기관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모금행사와 캠페인을 기부자 스스로가 기획하는 경향을 말한다. 기부자가 단순 참가자에서 캠페인 기획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렌드는 '참여형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 이런 트렌드가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향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 팬이 스타와 관련한 상품을 직접 기획·제작하는 행동 방식을 보이는 팬슈머(Fansumer, 팬+컨슈머)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으로 후원하고, 직접 기부 캠페인을 기획하는 팬덤 기부가 팬슈머 트렌드를 잘 보여준다.

기부자는 이미 기획된 모금 캠페인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기획하고 모금도 한다. 기부자가 모금인이 되어가는 이러한 참여는 2020년에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모금 기관들이 기부자의 이런 참여 욕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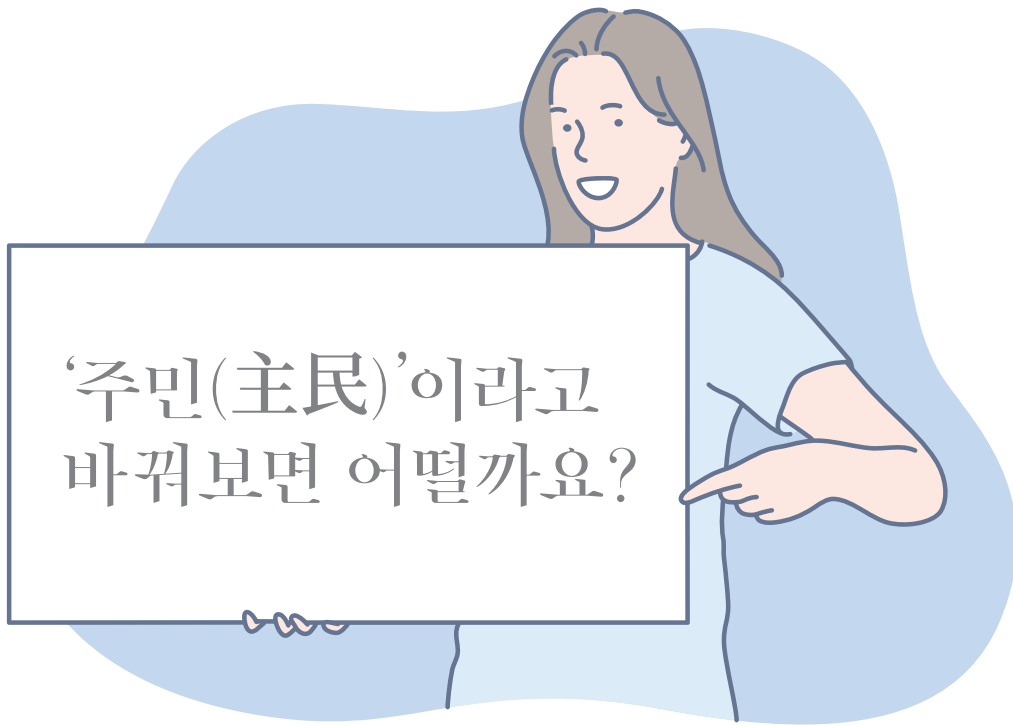
저소득층, 취약 계층, 수혜자, 이용자, 돌봄노인...

더 평등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접근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지만, 우리가 쓰는 언어는 아직 그걸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 존엄과 평등을 지향 가치로 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단어가 꽤 많다.

글 이선희 참고 자료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성민복지용어사전>



경제적 관점이 반영된 '저소득층·취약 계층'

'취약 계층'이란 사회적·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경제적·정치적·심리적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을 말한다. '저소득층'은 글자 그대로 소득이 적은 집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를 일컫

는다. 취약 계층과 저소득층의 정의에는 경제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서울시 관악구 소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해당 용어의 사용이 경제 수준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은 무시한 채 집단으로 관리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삶이라 해도 '결핍'에 초점을 맞춰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계층으



로 집단화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과 역량'에 초점을 둔 관점으로 용어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칭적 힘의 관계가 담긴 '수혜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수혜'는 은혜를 입음 또는 혜택을 받음이라고 나와 있다. 수혜자란 은혜를 입거나 혜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업의 대상자를 수혜자라고 표현해왔다. 예를 들어 추석 명절 후원품을 받는 사람을 수혜자라고 표현하면 후원품을 받아 은혜 또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제공자와 받는 사람 간에 비대칭적 힘의 관계가 담겨 있기에 주권적 삶의 주체를 지칭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소비하고 구매하는 '이용자'

'이용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어사전에 나온 설명 그대로 어떤 물건이나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쓴다. 몇몇 논문에선 이용자라는 용어가 소비자 주의 접근에서 언급하는 고객 또는 소비자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 이용자를 다른 말로 바

꾸면 백화점 고객 또는 소비자인 것처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경제적 행위의 주체로만 한정하는 위험이 있다. 또한 복지 사업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다.

대체 용어로 주민(主民)을 제안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층, 취약 계층, 수혜자, 이용자를 대체할 용어를 고민하다 '주민(主民)'이라는 단어를 제안했다. 주목할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다는 뜻의 주민(住民)이 아닌 주인 주(主)자를 썼다는 점이다.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계층 또는 수혜 대상이 아닌 주권적 주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모든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에 참여할 권리,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저소득층·취약 계층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독거노인'

독거노인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하며 '홀로노인', '홀로 사는 노인', '홀몸노인'으로 순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는 2008년 행정 용어 개정 사항으로 독거노인을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통해 홀로 살아가는 노인이라는 뜻의 홀몸노인이라는 용어로 바꿀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독거노인이란 용어에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노년에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부양 능력 부족으로 별거 상태인 노인을 말한다. 홀로 사는 노인을 존엄한 삶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수혜자나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홀몸노인이 아닌 '1인 가구 어르신'이라는 대체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이르는 '가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노인이 혼자 사는 보편적 사회현상을 담은 용어로 탈바꿈한 것이다. ❀

영화, 책, 공연... 열매 문화리스트

예술로 만나는 이웃 이야기

책과 영화, 그림과 음악, 노래와 춤이 있는 공연까지 모든 예술은 '사람'을 말한다. 그 속에는 차마 내뱉지 못한 사람의 진실까지 오롯이 담겨 있다. 알면서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문화 속에서 찾아봤다.

글 강은진 사진 각 영화사·출판사



인도판 헬렌 켈러와 설리번 선생님

〈블랙〉 감독 산제이 릴라 반살리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던,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여덟 살 소녀 '미셸'이 헌신적인 선생님 '사하이'의 도움으로 장애를 딛고 명문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까지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인도판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은 예상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영화에 꼽히기도 했고, 다양한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기도 했다. 포기를 모르는 선생님의 굳은 믿음과 노력으로 미셸 인생도 새롭게 변하며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 사하이가 미셸에게 유일하게 가르치지 않은 단어가 '불가능'이었다. 영화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미셸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다. 미셸은 불가능이란 걸 모르니까.

러시아영화제 'Spirit of Fire' 최고 작품상,

가치봄영화제 20회 대상 수상 〈나는 보리〉 감독 김진유

소리와 고요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열한 살 '보리'의 성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영화다. 바닷가 마을에 사는 보리는 가족 중 유일하게 들을 수 있다. 초등학교가 된 보리는 말로 하는 대화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수어로 소통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자신이 가족과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조금 이른 사춘기를 겪게 된다. 타인과 차이를 없애려는 욕망이 오히려 차별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담은 이 영화는 열한 살 소녀 보리가 가족들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특별한 소원을 품으면서 벌어지는 사랑스러운 성장 드라마다.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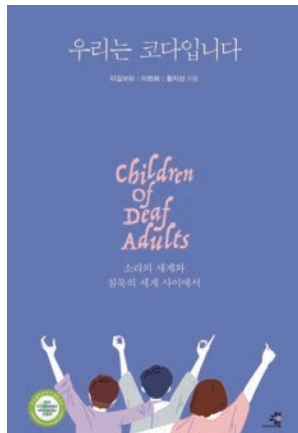
류승연 지음 | 샘터

세상에 두려울 게 없던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에서 세상의 모든 시선이 두려운 장애 아이의 엄마가 된 저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왜 하나의 세상에서 공존해야 하는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세상 한가운데서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장애가 인생의 장애가 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 접근 금지' 같은 것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얼마나 잘 어울려 지내는지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반편견에 대해 말하다
<우리는 코다입니다>

이길보라·이현화·황지성 지음
 교양인

'코다'는 농인(聾人)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인(聽人) 자녀를 말한다. 우리나라 유일의 코다 단체인 코다 코리아(CODA Korea)에서 만난 영화감독, 수어통역사, 장애인 인권 연구가 등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낯선 코다를 드러내기 위해 이 책을 기획했다. 코다의 시선으로 코다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장애인과 그 장애인 가족의 삶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낯선 세상을 밝히고, 우리 안의 편견을 보여주며 대화를 시도한다.



정신적 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청년들
<나는,

어떤 비장애 형제들의 이야기>
 '나는' 지음 | 피치마켓

정신적 장애인을 형제자매로 둔 청년 7명의 진솔한 이야기다.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기 위해 비장애 형제들의 자조 모임 '나는'을 만들고, 장애 형제와 함께 살며 타인에게 받은 상처, 부모에 대한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주제로 고민하고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엮었다. 일반 장애인 가족의 삶이 감동적으로 그려지는 반면, 이 책은 무거운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희망이라고 말한다.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내가 나를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담았기 때문이다. ♡

정태희 대전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대전 사랑의열매 정태희 11대 회장이 취임식을 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정 회장은 세계 밸브 산업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삼진정밀 대표이사로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이하 아너), 착한일터 등 나눔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정태희 회장은 1991년 (주)삼진정밀 대표이사로 취임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범죄피해지원센터 후원회장, 정부조달마스협회 부회장,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2018년에는 대전 사랑의열매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전 사랑의열매 11대 정태희 회장

Q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대전 사랑의열매와 함께하게 되셨 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나눔문화의 선두에 있는 대전 사랑의열매 제11대 회장으로 취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9·10대를 이끌어오신 안기호 회장님의 업적이 매우 크셨기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 내 도움이 필 요한 이웃에게 힘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랑의열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사랑의열매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여유가 될 때마다 조금씩 기부를 해오던 중 2012년에 대전 아너 클럽을 이끌던 이승호 대표가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남모르게 하는 나눔은 옛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는 이 대표의 조언에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나눔을 알리는 일을 극구 꺼리던 생각이 바뀐 계기가 되었죠. 이후 저와 아내는 아너 회원, 자녀들은 나눔리더,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착

한일터 가입 등 나눔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Q 대전의 다양한 복지 중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를 꼽아주시 닲면요?

지금까지는 기부자이자 자원봉사자로 사회복지에 접한 게 전부이 지만, 앞으로 아동복지부터 노인복지까지 모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자 합니다. 사랑의열매는 특정 분야보다는 사회복지 전 분야를 지 원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곳곳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 며, 대전 사랑의열매가 복지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대전 시민과 대전 사랑의열매 직원들에게 전하 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대전 사랑의열매 직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무슨 일이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 습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며 직원들이 기쁘고 행복한 대전 사랑의 열매를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직원들이 이웃을 돕고, 나아가 나눔 으로 행복한 대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기철 경남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균형 잡힌 배분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경남 사랑의열매 강기철 10대 회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취임식 날 아내인 이은정(주)나노 대표가 아내에 가입해 부부 아너로 나란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가족의 든든한 지원 덕에 신임 회장으로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강기철 회장은 대일전기(주)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경남을 대표하는 전기 회사로 발전시킨 현장 전문가다. 현재 창원상공회의소 상임위원,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 15대 회장, 국제로타리 3722지구 2017~2018년 총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경남 사랑의열매 10대 강기철 회장

Q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경남 사랑의열매와 함께하게 되셨 습니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경남 사랑의열매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 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경남 도민 여러분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려운 시기에 조직의 회장이 된 터라 사랑의열매가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 민이 많습니다. 지금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사랑의열매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2014년 아내에 가입하며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사랑의열 매 운영위원 부회장을 역임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 깊이 배우게 되 었지요. 이번에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 하기 위해 아내에게 아너 가입을 권유했고, 흔쾌히 수락해 경남 아 홉 번째 부부 아너가 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 레는 선물은 나눔”이라는 아내의 말처럼 저 역시 가장 설레는 선물 을 받은 것 같아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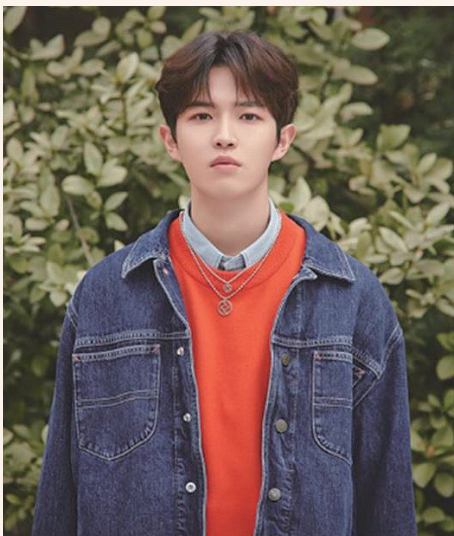
Q 임기 동안 어떤 비전과 목표로 경남 사랑의열매를 이끄실 게 확인가요?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나눔을 알리며, 잠재적 기부자 를 개발해 나눔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확실하게 챙길 것입니다. 또 균형 잡힌 배분 으로 나눔의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경남 도민과 경남 사랑의열매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경남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경남 사랑의열매가 어느덧 22년을 맞 이했습니다.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 항상 나눔의 뜻을 잊지 않고 동 참해주신 기부자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관계자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 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중앙회



지니뮤직, 2월 이벤트 1위 가수 김재환 이름으로 기부

지난 3월 18일 온라인 음악 사이트 지니뮤직(대표 조훈)이 가수 김재환의 이름으로 300만 원의 기부금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지니뮤직은 2019년부터 네티즌 투표로 올해를 빛낼 아티스트를 선정해 1위를 한 아티스트 이름으로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뉴이스트 황민현의 이름으로 3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쥘피 아티스트’에 대한 투표 이벤트에는 총 24만 명의 네티즌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지난해 솔로로 데뷔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워너원 출신 가수 김재환이 45.03%로 1위를 차지했다. 강다니엘, 레드벨벳 조이, 유산슬, SF9 로운이 뒤를 이었다. 지니뮤직 이상현 전략마케팅단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올해 최고 활약을 벌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수 김재환과 함께 기부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지니뮤직은 아티스트의 음악 활동이 기부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소감을 전했다.

지니뮤직 ‘올해 가장 기대되는 쥘피 아티스트’ 1위로 선정된 가수 김재환

중앙회



(사)한국저서력인협회와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사랑의열매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에 각 계각층의 따뜻한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7일에는 (사)한국저서력인협회와 부설 기관인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표 미영순)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어려운 시국에 나눔을 실천하고자 (사)한국저서력인협회 이사, 협회 회원, 맑은장애

인자립생활센터 직원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기부금 전달식에서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미영순 대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이 힘든 상황이지만, 장애가 있는 국민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며 “바이러스 감염보다 당장 일상생활 자체가 막막하다.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적은 액수지만 정성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성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 지역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연예인 기부 줄이어

윤아, 전현무, 김우빈, 지코, 김성주, 다니엘 헤니, JYP엔터테인먼트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확진자를 위로하고, 더 이상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힘을 보탠 것. 기부금은 의료진의 방호복, 마스크 등 의료용품 구입과 면역 취약 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사랑나눔 위한 물품 지원

지난 3월 18일 서울 사랑의열매에 락스와 음료가 전달됐다. 백광산업이 전달한 2L 락스 5만 개는 취약 계층의 코로나19 방역에 쓰게 되며, 동아오츠카와 고려온단이 각각 기부한 이온워터 1만 8개와 스파클링 음료 4만 3,720개는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외 한 곳을 통해 서울 지역 어려운 계층에 무료 급식 대체식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 사랑의열매는 40억여 원의 배분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한 지원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경기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성금 1,500만 원 전달

지난 3월 18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회장 임귀선)가 경기 사랑의열매에 코로나19 극복 성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임원과 경기도 31개 시군협의회회장의 자발적 참여, 그리고 중앙협의회 지원금으로 마련한 이번 성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경기도 지역사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귀선 회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하루빨리 피해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맨즈(HHJ), 착한소비 캠페인 협약식 진행

지난 3월 23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맨즈(대표 황현준)와 착한소비(CRM) 협약식을 진행했다. 맨즈(HHJ)는 대한민국 100년 역사를 핸드폰 케이스에 디자인해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애국관련(3·1절, 애국지사 등) 디자인 케이스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기탁하게 된다. 황현준 대표는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북부



긴급 사업비 7,000만 원 지원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사업비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총 7,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비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취약 기관과 개인에 지원할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긴급 편성한 것이다. 지원금은 시군별 필요 사업 수요 조사를 통해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 물품과 자가 격리 조치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생계 곤란자의 생계비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따뜻한 손길 이어져

남양주시축구협회(회장 안창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만 5,000여 명의 회원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 1,742만 원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코로나19 특별 모금에는 일진약품, 의정부시 공직자, 빙그레,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 을지대학교 홍성희 총장, 셀온테라피, (주)글로제닉, 주식회사엘디에스, 고양상공회의소, 바이오플러스, 심우유통, 포천상공회의소, (주)네오메디칼, (주)아트캠 등도 동참했다.

경북



경북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도내 학생 긴급 지원

지난 3월 9일,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중식)은 도교육청 직원 400여 명이 모금에 참여한 코로나19 특별성금 1,587만 원을 경북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코로나19 관련 모금은 3월 한 달간 진행됐으며,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모금한 성금을 우선 기탁하였다. 성금은 경북 도내 학생들이 마스크,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협은행·중앙회, 성금 약 1억 5,000만 원과 건강식품 기탁

지난 3월 10일, 수협중앙회 홍진근 지도경제대표이사과 이동빈 SH 수협은행장은 경북도청 도시사실에서 성금 약 1억 5,000만 원과 5,000만여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과 구호품은 포항의료원 등 도내 코로나19 전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및 자가 격리자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홍진근 지도경제대표이사과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도 공무원 관계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도민에게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했다.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랑의 학교 모금 성금 전달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희국)은 희망2020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모은 사랑의 학교 모금 성금 1,088만 6,200원을 광주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73일간, 40개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의 참여로 모은 금액이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 모금 캠페인의 성금은 저소득 가정 중·고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129명의 교복 구입을 지원했다.



광주교육대학교, 코로나19 극복 위한 성금 기부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37만 3,550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교직원들은 학교 내에 비치한 모금함에 성금을 모았고,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생회에서 공지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 최도성 총장은 “광주교육대학교와 광주, 목포 부설초등학교의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어려운 시기에 나눔으로 힘을 보태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대구



세원그룹 김문기 회장, 성금 13억 원 기탁

지난 3월 16일, 세원그룹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생하는 임직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역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임직원의 뜻을 받아들여 지급 예정이던 격려금에 김문기 회장의 개인 성금을 합한 13억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성금은 대구 지역 6억 원, 경상북도 지역 6억 원, 충남 아산시에 1억 원을 각각 전달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 위기 극복 성금 전달

지난 3월 4일, 대구지방공인회계사회(회장 이진복)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8천 8백여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진복 회장은 “대구시의 상황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대구·경북 소속 회계사와 중소회계법인협의회를 비롯해 전국 회계사들의 마음을 모았다”고 전했다. 성금은 질병 취약 계층을 위한 구호 물품 지원과 의료진 방역 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자 구호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전



KT서비스남부, 마스크 8,000장 기탁

지난 2월 24일, KT서비스남부가 대전 지역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마스크 8,000장을 기탁했다. 2018년부터 여성 위생용품 등 현물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KT서비스남부의 김현수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저소득 가정에서 바이러스 예방 물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확산 방지에 힘을 보태고자 마스크 기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탁받은 마스크는 독거노인과 노숙인,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코로나19 성금 전달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이하 과출협) 김명준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바라는 회원들의 뜻이 담긴 성금 1,000만 원을 대전 사랑의 열매에 전달했다. 김명준 회장은 “과학기술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출협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기관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협의와 협력 도모를 위해 설립한 기관장 협의체로, 1994년 발족해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 서울, 광주, 세종 등 50개 정부 출연 기관이 참여한다.

울산



고려아연(주), 코로나19 특별 성금 기탁

지난 2월 27일 고려아연(주)(회장 최창근)은 울산 사랑의열매에 코로나19 특별 성금 5억 원을 전달했다. 고려아연(주)은 2001년부터 매년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으로는 마스크 22만 5,000장을 구매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에 배부할 예정이다.



(주)무학, 살균 소독제 22만 2,660개 지원

지난 3월 12일 (주)무학(사장 이종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 7,000만 원 상당의 살균 소독제를 울산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종합 주류 회사인 무학 고유의 주류 제조 기술로 만든 살균 소독제를 기부한 것으로, 500ml에 소주 5~6병 분량의 에탄올이 들어간다. 이종수 사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응원했다.

전남



광주MBC,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전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3월 5일 광주MBC(사장 송일준)에서 모금한 희망2020나눔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광주MBC에서 모금한 이웃 돕기 성금으로 총 3억 5,445만 1,640원이 모금됐다.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은 “2020년에 진행하는 배부 사업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농협 전남조합장, 8,000만 원 쾌척

농협 전남 지역 조합장과 NH농협은행 전라남도 영업본부는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한 성금 8,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탁받은 성금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방역·위생용품 구매에 사용해 도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 농협은 대구·경북 지역에 지역 특산품인 무화과·양파·울금즙을 전달한 바 있고, 화훼 농가 지원 릴레이 캠페인 운동을 이어가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인천



사단법인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 성금 3,100만 원 전달

지난 3월 11일 사단법인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회장 윤운식)은 인천 사랑의열매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3,100만 원을 기탁했다. 2007년 2월에 설립한 사단법인 글로벌최고경영자클럽은 수출에 주력하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에 300여 개 회원사가 있다. 윤운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구 지역 노인 주거 복지시설 후원

지난 3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분환)는 인천 사랑의열매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노인 주거 복지시설 41개소에 의료 기기와 방역 물품을 지원했다. 후원 물품은 산소발생기 41대, 전해수기(살균수 제조기) 82대, 살균 스프레이 1,200개로 노인복지시설의 방역 강화와 어르신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구분환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말했다.

부산



코로나19 극복 위한 특별 성금 모금 진행

부산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특별 모금을 진행했다. 모금 첫날부터 세운철강·목장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곶탕과 갈비탕을 쾌척했고, 대한불교조계종 중흥 진제스님이 1,000만 원, 와이씨텍 박수관 회장이 1억 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부산 사랑의열매 신정택 회장은 “모금으로 부산 시민들이 코로나19를 빠르게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약 계층과 의료진을 위한 배분 사업 시작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부산 사랑의열매가 모금한 코로나19 특별 성금의 배분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 지역 내 건강 취약 계층이 거주 중인 사회복지 생활시설 90개소에 방역·소독기 및 소독제를 전달했다. 이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1억 9,700만 원과 선별진료소, 격리병원 등 의료 기관에 현장 요원 지원용 방호복 2,000벌을 부산시청을 통해 전달했다.

제주



제주은행, 임직원과 함께 모은 성금 1억 원 기부

지난 3월 9일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제주 사랑의열매에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제주은행이 진행하는 총 9,000억 규모의 '코로나19 상황 극복 종합지원대책' 중 CSR(사회 공헌) 부분의 세부 플랜으로, 전 임직원과 은행이 함께 모아 마련했다. 기부금은 제주 지역사회 취약 계층의 긴급 생계 지원과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 물품의 구입, 검사·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동안(주), 1,000만 원 상당 제주수박 핸드크림 기탁

지난 3월 11일 동안(주)(대표 강성희)은 1,000만 원 상당의 제주수박 핸드크림 1,000세트를 전달했다. 동안(주)은 제주의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자 설립한 여성 기업으로, 제주대학교 산학융합원과 함께 제주 신임리의 수박 줄기와 잎을 활용한 미백 화장품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기탁받은 물품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운동을 장려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15개소에 지원했다.

충남



국제로타리 3620지구,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성금 전달

국제로타리 3620지구(총재 김중언)는 지난 2월 26일, 충남에서 첫 번째로 충남 사랑의열매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도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김중언 총재는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로타리클럽 3620지구는 충남도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협력사업 체결을 비롯해 반찬 봉사, 집짓기·집수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중부발전보령발전본부, 취약계층 여성 핑크박스 후원

지난 3월 3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본부장 임오식)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발전소 인근 지역 취약 계층 여성들을 위한 핑크박스(위생용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기본 건강과 직결되는 실질적 물품을 후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핑크박스는 친환경 유기농 제품으로 꾸러 만 11세부터 만 50세의 보령시, 청양군 취약계층 여성 총 180세대에 전달한다.

충북



충북 사랑의열매·청주시, 사랑의마스크 나눔 운동 전개

지난 3월 16일 충북 사랑의 열매는 청주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마스크 나눔 운동'을 시작했다.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내가 가진 마스크를 나누어 나보다 더 필요한 이웃을 돕고자 진행한 시민들의 자발적 나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십시일반으로 도움의 손길을 모아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달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한국동서발전(주), 특별 성금 3,000만 원 쾌척

지난 3월 23일 한국동서발전(주) 음성그린에너지건설추진실(실장 장익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음성 지역 내 취약 계층 등의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한국동서발전(주)은 음성 읍내 지역아동센터에 간편 식사와 위생용품 전달하고, 음성 사업장 주변을 수시로 방역·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세종



방역소독을 통한 긴급 지원 사업 실시

세종 사랑의열매가 지난 3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세종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종복)의 재난재해봉사단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시민 단체 등 도움이 필요한 기관·단체 112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이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노인 요양 시설 14개소는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해 주 3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영재어린이집, 사랑의동전모이기 성금 기탁

지난 2월 21일 세종영재어린이집(원장 손상실)에서 원생들이 모은 '사랑나누기 저금통'을 세종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며 부모님 심부름과 착한 일 등을 하고 받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기부해 더욱 뜻깊은 것이다. 고사리손으로 십시일반 모은 성금은 세종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비롯한 지역사회 주민에게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강원



공이정 원장, 강원도내 한의사 최초로아너 가입

인척한의원 공이정 원장이 강원도 77호이자 원주 18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는 강원 도내 한의사 최초의 가입으로 공 원장은 향후 5년간 1억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지난 3월 12일, 원주시청에서 진행된 가입식에서는 올해 기부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코로나19 방역 물품 후원을 위해 전달했다. 공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가 어려운 만큼 나눔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춘천아너소사이어티, 코로나19 성금 500만 원 기탁

춘천아너소사이어티(회장 이석분) 회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기탁에는 이석분 회장(강원아너 15호)과 임기수 회원(강원아너 9호), 홍영숙 회원(강원아너 41호), 여지영 회원(강원아너 44호), 박선남 회원(강원아너 45호)이 동참했다. 이석분 회장은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다”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남



복지장학후원회와 사회복지사, 나눔리더단체 가입

지난 3월 9일, 경남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의 단체 가입식이 있었다. 이날 가입한 리더는 진해구청 강춘명 대민기획관, 창원G.M새마을금고 김대창 상무, 경남 사랑의열매 김상실 고문, 아리랑호텔 노태수 대표, 노인복지 기관 박갑열 사회복지사, 진해동지구구짬 박희자 대표, 내서종합사회복지관 이진석 사회복지사, 한일기공 정지현 대표, 차다숨 기부자까지 총 9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긴급 지원 예산 2억 원 투입

경남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 지원금 예산 2억 원을 별도로 편성하고, 경남 도내 의료 취약 계층인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223곳에 5,000만 원 상당의 소독제와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확보해 배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6일, 경남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협회를 통해 1차로 소독제 1,515개를 우선 전달했으며, 마스크는 수량을 확보하는 대로 2차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



전북은행, 코로나19 극복 성금 1억 6,700만 원 전달

지난 3월 20일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특별 성금 1억 6,700만 원을 전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전라북도에 5,000만 원, 전주시에 4,000만 원, 익산·군산시에 1,000만 원 등 시군별로 배분해 취약 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임용택 은행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전북은행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세아베스틸, 성금 3,000만 원 후원

지난 3월 16일 (주)세아베스틸이 코로나19 예방·방지 및 취약 계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성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주)세아베스틸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기업 정신으로 2012년부터 매월 일 정액의 사원 급여 적립액을 포함한 회사의 자체적 후원금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문화 확산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전북 사랑의열매를 통해 군산시에 1,000만 원, 대구광역시에 2,0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치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중앙
28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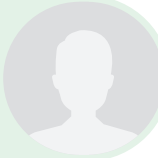
김범수 가수 “오랜 시간 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기부를 결심했습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동들과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길 바랍니다.”

중앙
288호



조해숙 (주)모베이스 이사
“소중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중앙
289호



임명 “나눔이란 또 다른 나를 일으키는 것.”

서울
287호



박정관 마디세상병원 대표원장
“나눔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강원
77호



공이정 인덕대학원 원장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려운 만큼 나눔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남
120호



이은정 (주)나노 대표
“세상에 설레는 선물은 바로 나눔입니다.”

경남
121호



박정우 (주)엔지피 대표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나눔 때였습니다.”

경남
122호



박종한 백운글로벌(주) 대표
“우리 사회에 춥고 어두운 곳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에게 소중한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경북
114호



반성명 옥산가스 대표
“어려운 이웃들의 불행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기부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너 가입 이후에도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부산
194호



김현태 (주)상명 회장 “나눔은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이 평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적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중앙 임명, 익명
경계현 삼성전기(주) 대표이사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호 독자 의견

-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의 오빠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가 친구들과 놀림을 받으면 동생은 마음이 상한지 뽀로통해 있답니다.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결책을 알려줘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기사를 읽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알다'라는 표현이 옳다고 생각해 자주 사용하고, 속담에 담긴 차별 표현도 생각 없이 사용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점검하고 고쳐나가야겠습니다. 올바른 단어 사용이 사회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효근 전남 해남군



- 인천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우연히 <사랑의열매>를 보던 중 '어느 사회복지사의 고백'을 읽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욕설을 퍼붓는 주인을 상대하면서 심적으로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가슴 뿌듯한 직업이지만, 동시에 본인의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처럼 많은 사회복지사가 희생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벗어나 인권과 안정을 보장해주는 '위가 우리를 위한 기회'를 보고 큰 감동과 함께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인식이 변화하는 만큼 사회복지사가 일반적으로 희생당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일할 만큼 질 높은 복지 서비스가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들을 응원해주세요! -곽희중 경기도 부천시



- 사랑의열매·삼성·교육부·푸른나무재단이 손잡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 예방 사업 '푸른코끼리' 업무 약정식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잘 읽었습니다. 저도 청소년인 3남매를 키우고 있다 보니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왕따나 폭력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큼니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피해 학생 치유를 지원한다니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데 든든한 마중물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 김남숙 전북 전주시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움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파우치(색상 랜덤)



안마봉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

모두에게 봄이 올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가 나눔의 꽃을
피워가겠습니다.



2019년 **5,958억 원**으로
28,870개의 기관과
457,988명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 사랑의열매는 모두를 돕습니다



사업분야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합니다



숨은 사랑의열매를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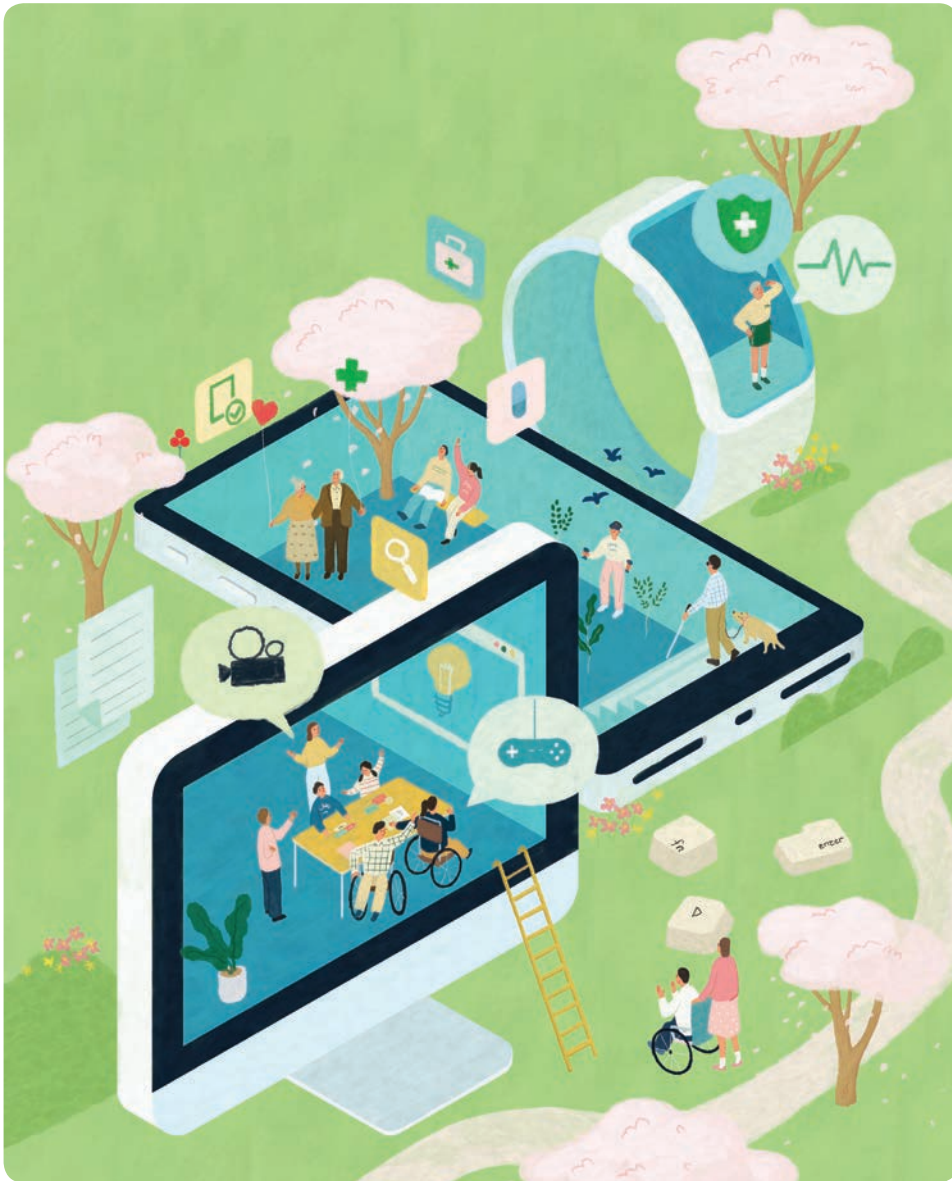


그림 속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사랑의열매를 찾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응모 방법 숨은 그림을 찾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자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